

눈길 끄는 특·특·행·정

가스사용량으로 어르신 안부 확인

신안 지도읍, IoT 접목 배관망 활용 이상 발견때 방문간호사 긴급 출동

신안 지도읍이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LPG가스 배관망을 활용해 혼자 사는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추진, 눈길을 끈다.

지도읍 LPG 가스 공급업체인 '1004섬 지도읍 배관망'은 가정별로 무선 연결된 가스계량기를 통해 가스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스사용량이 급격히 줄거나 일정 기간 사용량이 없을 경우 지도읍사무소에 통보하게 되고, 읍사무소는 방문간호사를 긴급 출동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도읍은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행심 '1004섬 지도읍 배관망' 대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자원봉사단체가 독거 노인들의 상황이 매일 살핀다고 해도 24시간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사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정보를 공유하면 위험에 처한 어르신을 골든타임 내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해 지도읍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때"라며 "민·관이 협력한 스마트 기술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를 구축해 고독사 없는 안전한 1004섬 신안을 만들고 사업도 확산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에서는 쓰레기도 돈 된다

군, 재활용품 유가보상제 실시

해남군은 지난 15일부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인 재활용품 유가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해남형 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포인트를 적립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

유가보상제의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비우고, 행구고, 제대로 분리하고'를 실천해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가져와야 한다. 해남군은 오는 6월까지 해남읍사무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7월 이후 면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포인트 교환 품목은 플라스틱류(5종), 병병류(3종), 캔류(2종), 종이류(3종)이며, 기존에 공병보증금이 지급되는 소주병과 맥주병, 골판지 박스는 제외한다.

지남해 해남군에서는 1930의 재활용 쓰레기가 배출됐으며, 선별장을 거쳐 실제 재활용된 비율은 58.9%인 1137t이었다. 나머지는 소각과 매립 처리됐다.

해남군은 지난해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뜰뜰한 자원순환마을'을 통해 예코플랫폼 시설 내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재활용품 유가보상제를 통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수거 정착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실제 재활용 비율을 오는 2023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3분이면 육지 나들이"...신안 임자대교 오늘 개통

1766억 투입 4.99km 해상교량 임자~서울 시외버스 내일부터 운행



신안 지도읍과 임자도를 잇는 임자대교가 19일 오후 4시 개통된다.

신안군 지도읍과 임자도를 잇는 임자대교가 19일 오후 4시 개통된다. 또 20일부터 임자 대교에서 서울행 시외버스가 운행돼 임자에서 서울까지 일일 생활권 시대가 열린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국도24호선 임자대교는 연장 4.99km 해상교량으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7년6개월(90개월) 동안 총 사업비 1766억원이 투입, 건설됐다.

임자대교는 신안의 12번째 대교로 천사대교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임자대교는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신안 북부권역 발전을 선도하고 세계 최대 신안해상풍력단지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도와 임자는 여객선으로 30분 이상 소요되지만 임자대교 개통에 따라 차량으로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져 농수산물 유통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자도에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톨립축제(4월)가 열리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백사장 대광해수욕장(12km)을 지니고 있다.

신안군은 임자대교가 개통되면 연간 30만명 이

상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자도는 또 신안 대표 특산물인 대파 주산지로서 신안 전체 대파면적(1422ha)의 절반 이상(805ha)을 차지하고 있다.

임자대교 개통에 맞춰 금호고속은 신안 임자~서울·광주·목포 간 시외버스를 운행, 주민 이동편의

보장은 물론 서울까지 원스톱으로 오고 갈 수 있게 된다.

신안 임자~서울·광주·목포 노선은 각각 1일 2회씩 왕복운행 한다. 요금은 서울노선 4만300원, 광주노선 1만3300원, 목포노선 1만700원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어선 승선원 변동시 꼭 신고하세요"...서해해경 일제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 사고 발생 시 혼선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한다.

서해해경은 단속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22일부터 해-육상을 통해 집중 단속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따라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 신고해야 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에 따라 출

입항 신고의 자동-간소화로 신고의식이 결여돼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어선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 적발 건수는 195건이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 대마면, 일자리사업 '청정대마 프로젝트' 추진

영광 대마면이 '대마를 맑고 푸르게(Clear & Blue)'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청정대마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대마면은 지난 16일 '청정대마 프로젝트 사업' 발대식을 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마을 화단 가꾸기,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리,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 청정하고 아름다운 만들기 핵심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수행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 지원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상훈 대마면장은 "청정대마를 만들기 위해 마

을 화단 가꾸기, 마을 청소, 영농폐기물 수거·분리,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청정대마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대마면 역점사업인 '청정대마 프로젝트'를 병행해 청정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마면은 태정산 안골 야생화 단지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단풍길 8km, 진입로 꽃길 3km, 국화 식재 7만㎡ 등 총 15만㎡의 부지를 조성했다. 올해에도 국화·수국·구절초 등을 파종해 '여름 수국, 가을 국화'를 테마로 휴양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 대마면 주민들이 지난 16일 역점사업인 '청정대마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발대식을 하고 있다.

양파 노균병 빠르게 확산...영광군, 적기 방제 당부

최근 온화한 기후의 영향으로 '양파 노균병'이 확산하면서 영광군 등 주산지 재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양파 노균병'이 빠르게 확산 중인 만큼 예방활동을 통해 적기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파 노균병은 토양전염과 공기전염으로 발병한다. 발병온도는 4-25도로 기온이 상승하고 잦은 강우로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

양파 노균병 발생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육묘 중 감염돼 겨울철 잠복해 있다가 2-3월 온·습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한다. 2차는 3-4월 1차 발생한 병원균이 분생포자를 형성하고 바람을 통해 전파되면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1차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양파 포기 초기에 뽑아서 태워야 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